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2006년 이후 첫 감소...코로나 영향

여가 목적보다 건강·체력 관리 위한 참여 목적 증가

되도록 타인과의 접촉 피할 수 있는 운동 종목 ‘인기’

지난해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장애인체육회는 23일 “2020년 장애인 생활체육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은 24.2%였다”고 발표했다.

조사는 전국 만 10세이상 69세 이하 등록 장애인 1만 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2일부터 올해 1월11일까지 진행됐다.

문체부는 “2006년 조사 이후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율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여왔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장애인의 체육활동이 위축되면서 처음으로 생활체육 참여율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 운동을 여가활동 목적보다는 건강과 체력 관리 목적으로 하는 경향을 강하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생활체육 참여율 감소가 소폭에 그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장애인이 주로 운동하는 장소는 ▲야외 등산로나 공원(31.8%) ▲체육시설(12.9%) ▲집안(8.2%) 순으로 나타났다.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비율은 전년과 비교해 5.6%포인트 증가한 87.1%로 조사돼 코로나19로 인한 시설이용 제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는 참여운동 종목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체육 참여자가 주로 참여한 운동은 걷기 및 가벼운 달리기가 58.4%로 가장

많았다.

근력 훈련(웨이트트레이닝)(9.2%), 맨손체조(7.3%)가 2, 3위에 올랐다.

특히 근력 훈련(웨이트트레이닝), 등산은 각각 전년 대비 4.8%, 4.4%포인트 증가한 반면 수영은 3.3%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되도록 타인과의 접촉을 피할 수 있는 운동 종목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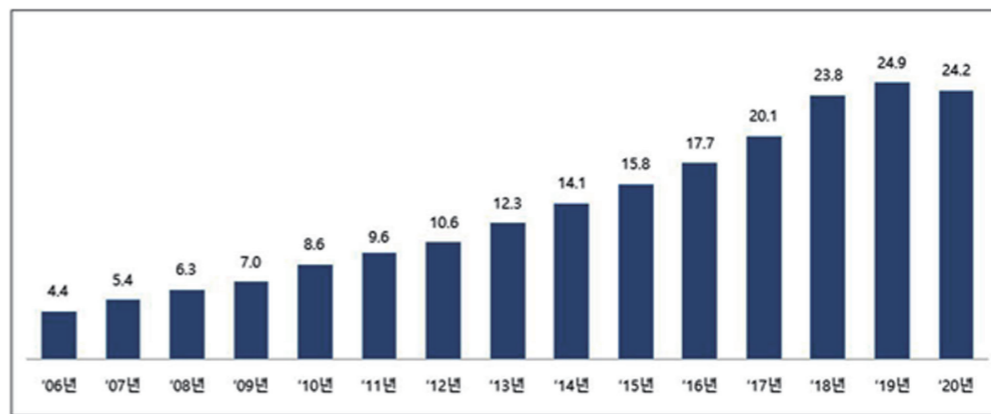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운동하는 장애인의 목적은 건강 및 체력 관리가 82.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재활운동(11.0%), 여가활동(5.9%)이 뒤를 이었다.

운동 시 동반 참여자에 대한 설문에서는 혼자가 68.7%로 가장 많았다.

최근 1년간 운동 경험이 없는 장애인들은 운동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설문에는 몸이 안 좋아서/움직이기 어려워서란 답변이 29.2%로 가장 많았다.

운동 시 가장 중요한 보완점으로는 2019년(36.7%)에 이어 이번에도 비용 지

<그림 1> 완전 실행자 비율/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연도별 추이 (단위: %)



원(47.6%)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장애인 생활체육프로그램(12%), 장애인용 운동용품 및 장비(11%), 체육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9.8%) 등의 순으로 보완점을 꼽았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 장기화 속에도 장애인들이 건강과 체력 관리를 위한 규칙적 운동 노력으로 참여율이 소폭 감소한 것은 다행스럽다”면서도

“다만 장애인들이 운동에 참여하기 위한 장벽이 여전히 높은 것이 현실인 만큼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확충’, ‘장애인 스포츠강좌 지원 확대’,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등을 계속 확대해 장애인들이 언제, 어디서든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유나기자

담양군, ‘군민과 함께하는 치매예방 홍보 캠페인’

치매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 위해 마련



담양군은 지난 22일 담양읍 5일장터 일원에서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 및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치매예방홍보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치매 인식 개선을 통해 치매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이끌어내고,

치매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켜 치매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지역주민 300여 명에게 치매예방을 위한 ‘치매예방 수칙 3.3.3.’ 지키기 당부와 치매 조기 검진

의 필요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했으며, 치매안심센터 사업 및 이용안내도 함께 실시했다.

치매는 어르신들이 가장 걱정하는 대표적인 노년기 질환으로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며,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히 치료·관리하고 치매에 동반된 증상을 개선할 경우 환자 및 그 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크게 경감시킬 뿐 아니라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김순복 치매안심센터장은 “치매는 예방이 중요한 질병으로 치매에 대한 이해와 지역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치매 걱정 없이 안심하는 지역 사회가 되도록 앞으로도 치매 인식개선과 예방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치매와 관련한 문의 사항은 담양군 치매안심센터 또는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로 연락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담양=박종영기자

함평군, 취약계층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

노인의료나눔재단과 업무협약 체결...대상자 대폭 확대



함평군이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18일 노인의료나눔재단과 ‘2021년 취약계층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군과 재단 재정지원으로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 대상을 3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사업을 더

욱 활성화시키기 위함이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무릎인공관절 치환술이 필요한 만60세 이상이며, 군 보건소에 신청하면 재단에서 지원대상자를 심의·결정한다.

지원금액은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로 최대 12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이 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더 많은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수술기회를 드리게 됐다”며 “적극적인 홍보와 대상자 발굴을 통해 최대한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함평=김광춘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하나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코로나19, 우리가 함께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러 주세요!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은 준수해 주세요!

약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하고
2m 건강거리리를 두어 주세요!